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**Market 김지현** jeehyun12@kiwoom.com
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@kiwoom.com

미 증시, 기대 인플레 하락, 분기 리밸런싱 등으로 혼조세

미국 증시 리뷰

28(목) 미국 증시는 4 분기 GDP 및 소비심리 지표 호조,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도, 분기말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변동성, 연준 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면서 혼조세로 마감(다우 +0.1%, S&P500 +0.1%, 나스닥 -0.1%).
업종별로는 에너지(+1.1%), 유틸리티(+0.8%), 부동산(+0.7%) 등이 강세, 커뮤니케이션(-0.3%), 경기소비재(-0.1%), 기술(-0.1%) 등이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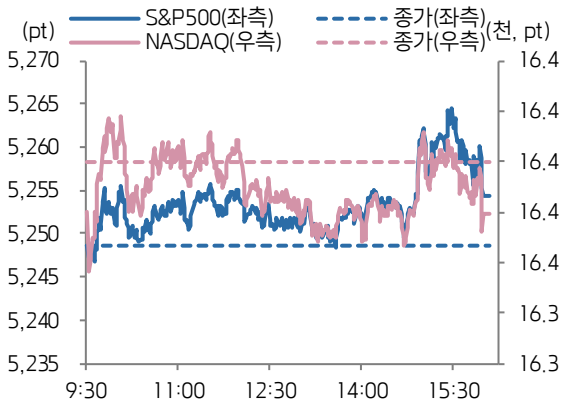
미국의 4 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3.3%(QoQ, 연율)로 지난 잠정치(3.2%) 및 컨센(3.2%)을 상회. 미 상무부 측은 민간 소비와 비거주용 고정자산투자가 상향조정 됐다는 점이 전반적인 성장률 상향의 배경으로 밝힘. 4 분기 PCE 가격지수는 1.7%(QoQ)로 전분기(3.3%)에 비해 낮아졌으나, 컨센(1.6%)은 상회한 반면, 코어 PCE 는 2.0%로 전분기(2.0%)와 동일했으나, 컨센(2.1%)은 하회. 4 분기 기업이익의 경우, 3.9%로 전분기(3.7%)에 비해 개선된 흐름을 보임.

주간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1.0 만건으로 전주(21.2 만건) 및 컨센(21.2 만건)을 소폭 하회.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81.9 만건으로 전주(179.5 만건) 및 컨센(181.5 만건)을 상회. 3 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는 79.4 로 전월(76.9) 및 컨센(76.5)을 큰 폭으로 상회.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.9%(YoY)로 전월(3.0%) 및 컨센(3.0%)을 하회.

윌러 연준 이사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며, 인플레이션을 2%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언급. 또 최근 데이터를 고려하면 금리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인하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으며, 금리를 너무 이른 시점에 인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피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표명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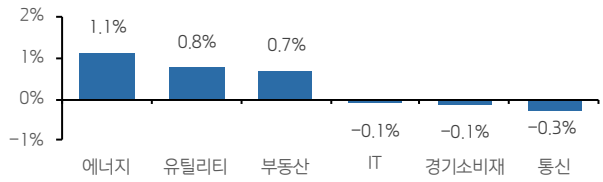
치폴로네 ECB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2% 목표에 도달하려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. 다만, 3 월 전망에서 예상한대로 경제지표가 흘러간다면, 신속하게 제약적인 통화정책 스탠스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. 동시에 금리 정상화 전에 추가 지표를 기다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상승 위험에 대한 보험성 성격이라고 설명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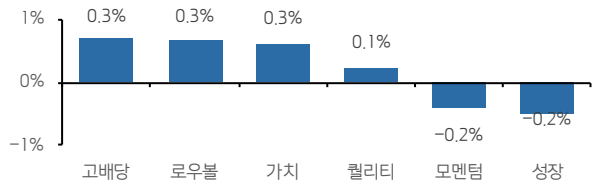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745.82	-0.34%	USD/KRW	1,346.05	-0.2%
코스피 200	373.22	-0.23%	달러 지수	104.53	+0.18%
코스닥	910.05	-0.13%	EUR/USD	1.08	+0.01%
코스닥 150	1,535.02	-0.41%	USD/CNH	7.26	+0%
S&P500	5,254.35	+0.11%	USD/JPY	151.39	+0.01%
NASDAQ	16,379.46	-0.12%	채권시장		
다우	39,807.37	+0.12%	국고채 3 년	3.300	+1.4bp
VIX	13.01	+1.8%	국고채 10 년	3.380	+0.5bp
러셀 2000	2,124.55	+0.48%	미국 국채 2 년	4.620	+5.2bp
필라. 반도체	4,905.21	+0.11%	미국 국채 10 년	4.200	+1bp
다우 운송	16,211.62	+1.14%	미국 국채 30 년	4.343	-0.8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5,083.42	+0.03%	WTI	83.17	+2.24%
MSCI 전세계 지수	783.17	+0.03%	브렌트유	87.48	+1.61%
MSCI DM 지수	3,436.78	-0.01%	금	2238.4	+1.16%
MSCI EM 지수	1,040.39	+0.35%	은	24.92	+0.66%
MSCI 한국 ETF	67.11	-0.28%	구리	400.7	+0.17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check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	MSCI 한국 지수 ETF 는 0.28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+0.37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16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48.3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주요 체크 사항	1. 전일 미국 증시 시클리컬 업종 강세 2. 연초 이후 수익률 SK 하이닉스(25.9%), 삼성전자(2.93%)의 격차 확대에 따른 키맞추기 가능성 3. 지수 상단이 정체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장세가 전개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이번주 들어 금리하락 기대감은 미 증시 내 빅테크 외 소비재, 산업재, 제약, 부동산 등 경기민감주, 태양광 등 소외 성장주로 확산되며 강한 미국의 경기 및 자본지출에 베팅하는 양상.

미국의 4 분기 GDP 확정치는 3.4%로 잠정치 3.2% 상향조정. 개인소비 및 기업투자는 상향된 반면 PCE 물가는 헤드라인 1.6%, 근원 2.0%로, 근원 PCE 는 0.1%p 하향조정.

2 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는 예상치 상회한 가운데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잠정치 3.0%에서 2.9%, 5 년 기대인플레 2.9%에서 2.8%로 하락.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역시 컨센서스를 상회.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미 경기 강세와 물가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해석.

금리인하 기대감을 상당부분 선반영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월러 연준 이사, 클라리다 부의장은 이틀에 걸쳐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등 시장의 과열을 뎡계하는 발언. 달러 상승폭 확대, 10 년물 국채금리 상승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. 4 월에 실적시즌 돌입하며 매크로 영향력은 다소 감소하겠지만 둘째주 CPI 발표 전후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 유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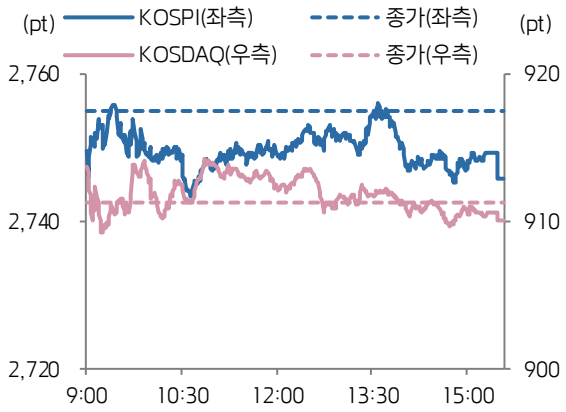
28 일(목) 국내증시는 신규재료 및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반도체 강세, 이차전지, 방산 약세 등 업종별로 차별화되며 약보합 (KOSPI -0.34%, KOSDAQ -0.13%)

금일에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 완화, 배당락 여파에도 지속된 외국인 저 PBR 주 순매수 지속 등 대외 여건은 우호적인 가운데 1 분기 마지막 거래일 리밸런싱 영향 및 개별주 순환매로 제한적인 움직임 예상.

1 분기에 S&P500 지수는 10.2%, 다우 5.6%, 나스닥 9.1%로 역사적 1 분기 수익률 최고치 기록.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12.6% 상승, 2000 년 9 월 이후 최고치. ASML(34.7%), SAP(32.6%) 등 IT 쏠림 현상과 더불어 경기 반등 기대 및 중국 실물 지표 반등에 LVMH(14.8%), 에르메스(25.7%) 등 명품주의 강세가 견인. 반면 코스피는 SK 하이닉스(25.9%), 하나금융지주(35.7%), 삼성물산(23.6%), 현대차(16.5%) 등 반도체, 저 PBR 주 강세에도 1 분기 수익률 3.4%, 코스닥 5.0%에 그침. 이는 2 분기 글로벌 주요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국내증시의 하단은 지켜질 수 있다고 해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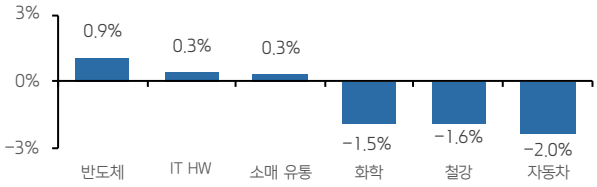
최근 순환매는 미중 갈등 및 안보와 관련된 반도체, 기계, 조선, 제약바이오로 좁혀진 모습. 반도체의 경우 미 대선을 앞두고 보조금 수혜 및 투자발표 등 미국발 낙수효과에 따른 수혜는 지속. 4 월초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경기반등에 대한 경기민감주 베팅으로 확산된다면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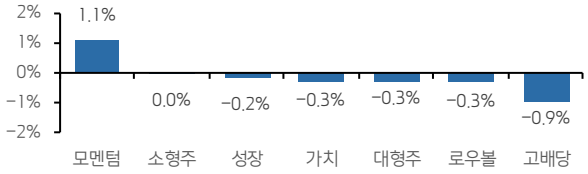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